

통원 암 환자의 미술 매체 선호도 연구: 미술 치료요법의 다학제간 접근

이윤희¹, 김지은^{2*}

¹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미술치료전공 박사학위예정

²차의과학대학교 융합과학대학 미술치료학과 교수

A Study on the Preference of Art Media of Cancer Patients: Multidisciplinary Approach of Art Therapy

Yun-Hee Lee¹, Jee-Eun Kim^{2*}

¹Ph.D. Candidate, Department of medicine(Major in Clinical Art Therapy, The Graduate school, CHA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Art Therapy, CH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치료를 통해 통원 암 환자들이 선호하는 미술매체를 파악하고 이유를 탐색하는데 있다. 대상자는 남성6명, 여성70명으로 총76명이며 유방암(38명), 기타 암(38명)질환자이다. 측정도구는 단(1)회기미술치료에서 매체선호도 자가 기입질문지와 만다라그림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ver.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성검증, 카이검증 결과와 만다라그림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매체선호도는 연령별, 투병기간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질환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다라그림에서는 매체의 특징과 질환별 요인에서 선호매체의 선택이유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간 입원 암환자를 대상으로 집중되던 미술치료 적 접근과 지원을 통원하는 암환자의 측면에서 집중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개입을 조명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통원 암 환자의 신심에 안정을 돕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통원 암 환자, 미술 매체, 선호도, 만다라 그림, 미술 치료요법, 다학제간 접근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media preferences and the reasons of cancer patient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 76 people. and they are 6 men, 70 women with 38 breast cancer patients, and 38 patients with other cancers. For measuring tools, self-written questionnaires and Mandala paintings were used for single-time art therapy. The data analysis compared the results of technical statistics, independence verification and chi verification using the SPSS WIN ver.25.0 with the Mandala paintin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a preference by age and duration of the diseas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a preference by disease. In the Mandala pai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and the factors of specific disease showed that there were reasons and effects of preference media choi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centrated on the art therapy access and support in terms of the cancer outpatients, which have been concentrated on inpatients so that they shed light to the support and intervention needed by the outpatients,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rt therapy programs to help stabilize the mind of cancer patients in the future.

Key Words : Cancer patients treated in outpatient care, Art media, preference, Mandala paints, art therapy, Multidisciplinary approach

*Corresponding Author : Jee-Eun Kim(jeeun.claraje@cha.ac.kr)

Received August 4,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August 31,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의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 국가에서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 해 평균 12만 명의 암 환자들이 발생하고, 죽음 및 치료로 인한 심각한 고통 속에 놓여있다[1]. 현재 암 환자의 의학적 처치는 암 환자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며 환자들은 약물로 인해 오심과 구토, 극도의 피로감, 배설의 변화, 식욕감퇴, 동통, 외모의 변화,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다[2]. 통제에 대한 상실감, 질병이 온 것에 대한 분노, 소외감, 불안, 우울, 절망, 무력감 같은 심리적 어려움도 느낀다[3]. 또한,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과의 대화단절 및 고립되면서 삶에 대한 존재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무가치 감을 느낀다[4].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치료와 대체의학 요법을 병행하는 보완 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이 제시되고 있으며, 보완 대체요법은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5]. 최근 암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보완 대체요법이 새로운 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암 환자의 경우 질병과 치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항하기 위해 보완 대체요법을 시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의학적 치료와 대체의학 요법을 병행하였을 시, 환자의 회복이 빠르며 수명 연장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6]. 국외에서 암 환자의 보완 대체요법의 이용은 미국이 80%[7], 영국은 29%[8], 이탈리아는 48.9 %[9]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암 환자 18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완 대체요법을 이용한 환자는 84.2%[10]로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대체요법과 병원치료를 병용하고 있으며 요가, 명상, 마사지, 인지 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보완 대체요법으로 암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중 미술 치료요법은 건강관리 분야에서 인간의 육체, 정신, 감정, 환경 등 통합적 치료와 관리로 의학적 치료를 보완하고 대체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암 환자들은 치료과정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적 경험을 하며 낮은 신체상과 부정적인 자기 지각을 경험하는 등[11]. 정서적으로 심각한 고통에 빠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한 원희량[12]은 자기성찰 및 수용을 통해 부정적인 지각에서 벗어나 낮은 신체상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는데 미술 치료가 효과적이라 보고하였다. 특히 김미진, 이근매[13]의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에서 미술 매체는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정서 상태나 심리적 방어 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 다양한 치료적 반응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 Langarten[14]도 미술치료에서 매체는 특성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내담자의 심리상태가 반영되고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미술 매체가 가진 재료의 고유한 특성이 내담자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고 선호 되어서 이 미술치료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15]. 미술치료에서 사용되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분류는 학자마다 다르며 물리적 특성에 딱딱하고 저항적인 건식매체와 부드럽고 유동적인 습식매체로 구분하였다[16].

본 연구에서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평면인 2차원과 입체인 3차원으로 분류한 정현희[1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매체를 1차적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Landgarten[14]의 매체의 특성 분류 기준에 따라 딱딱한 재료부터 시작하여 부드러운 재료의 특성에 따라 통제 매체와 유동 매체로 재구성하였다(Table 1 참고).

Table 1. Classification of art medium

Classification	Medium	
2 Dimensional	Control	pencil, colored pencil, crayon, marker, permanent pen
	Flow	pastel, paints
3 Dimensional	Control	magazine, colored paper, spangle, furwire, wire, shape sticker
	Flow	clay, colour clay
Tools	paint brush, eraser, scissors, glue	

통제 매체는 물기가 없고 단단한 매체로 산만하고 자기 통제가 어려운 사람에게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체로 연필, 색연필, 매직, 크레파스 등이 해당된다[18]. 유동 매체는 물성과 가변성으로 인하여 통제하기 어려운 매체로 파스텔, 물감, 점토가 해당된다. 통제하기 쉬운 재료를 선택하는 내담자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통제에 대한 강한 욕구, 신중하거나 억제적 측면, 내면적인 유약함을 보상적으로 통제하기 쉬운 재료를 선택한다고 하였다[17]. 김영진[19]이 발표한 연구에서 암 환자가 이용한 미술 매체가 암 환자의 부정적 정서표출의 안전한 장이 되게 돕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안미나[20]도 암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상실한 환자들이 미술 재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상실감을 재구성하고 부정적 감정들을 정화하는 동안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암 환

자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서 미술치료와 매체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모소현[21]의 2002년~2019년까지 암 환자 대상 국내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유방암, 혈액암, 소아암 환자 순으로 연구가 많으며 병원에서의 연구가 전체 연구 수의 61%로 가장 많다고 보고 하였다. 이처럼 암 환자를 위한 보완-대체요법으로 미술치료와 미술 매체의 효과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대다수가 입원환자를 대상에 맞춰있으며 매체도 입원환자의 상태가 고려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질환의 암 환자들과 퇴원 후의 암 환자들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가 진행된 P 지역의 기관은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치료 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환자의 현실적 문제해결 지원과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암 환자 생존율의 증가에 따라 암 환자들은 입원치료 이후에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치료 밖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만약에 발생 될 예측 할 수 없는 상태의 변화와 문제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상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기간 입원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되던 미술치료 적 접근과 지원을 통원하는 암 환자의 측면에서 집중하고 그들에게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미술 매체 도구를 파악하여 통원 암 환자의 신심에 안정을 돕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원 암 환자가 미술치료에서 어떤 매체를 선택하고 선호하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암 환자의 매체 선호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통원 암 환자의 연령에 따른 매체 선호도를 파악한다.
- 2) 통원 암 환자의 투병 기간에 따른 매체 선호도를 파악한다.
- 3) 통원 암 환자의 질환에 따른 매체 선호도를 파악한다.
- 4) 통원 암 환자의 만다라(원형) 그림에서 선호한 매체와 선호이유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IRB승인(HR-038-02)을 얻어 P 지역 기관에 통원하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총 100명이 미술치료에 참여하였으나 대상의 특성상 통증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해 최종 남자 6명, 여자 70명으로 총 76명이며, 질환별로는 유방암 38명(50%), 폐암 8명(11%), 혈액암 7명(9%), 갑상선암 5명(7%), 위암 6명(8%), 자궁경부암 3명(4%), 난소암 2명(3%), 췌장암 2명(3%), 직장암 2명(3%), 대장암 1명(1%), 설암 1명(1%), 간암 1명(1%)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서면 연구 참여 동의서와 자기기입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미술치료는 1회 90분간 단 회기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만다라(원형)를 그리게 한 후, 자유주제와 내용으로 그림 작업을 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매체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옥금자[24]의 미술 매체의 유용성에 근거해 9가지 종류의 매체를 제공하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였다. 매체 종류는 색연필(12색), 파스넛(36색), 건식파스텔(24색), 수채화 물감(18색), 잡지, 오브제 재료(색종이, 아이클레이, 폼폼이, 스팅클, 모루), 사인펜(12색), 매직(12색), 점토 등이다.

2.2 측정 도구

2.2.1 만다라(원형) 그림 미술치료

연구 참여자들의 미술표현과 매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8절 도화지를 제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만다라(원형)[23]를 먼저 그리게 한 후, 내용을 자유롭게 그리게 하였다. 작업을 마친 후 자신의 그림 주제, 내용, 매체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미술치료는 도입-활동-마무리로 전체 90분 동안 공감과 지지를 위한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2.2.2 매체 선호도 자가 질문지

미술치료 선호매체에 관한 선행연구 부족으로 경험적 자료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남정현[24]은 선호매체의 활용이 치료 변화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4개의 질문을 하였다. 첫째, 내담자의 변화를 갖고 온 요인, 둘째, 집단미술치료의 특성, 셋째, 미술치료를 통한 내담자의 변화, 넷째, 미술치료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

항이다. 김미진[13]은 치료적 요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미술 매체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미술치료 과정에서 미술 매체의 활용이 미치는 영향, 매체의 사용,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통해 치료적 요인별로 적합한 미술 매체 연구를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김미진[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경력이 20년 이상인 미술 치료학과 교수에게 감수를 받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암 환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질문과 문항을 간소화하였다. 또한, 연필, 파스텔, 물감, 잡지, 오브제로 구성된 박스 문항에서 주로 사용한 매체의 항목에 자가 체크 하도록 하였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ver.25.0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평균, 백분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고,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모집단에서 존재 여부를 검정하는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는 Pearson의 카이제곱 검증을 수행하여 통계학적으로 p값이 .05이상이면 가설을 기각하고, p값이 .05이하이면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참여자가 작성한 질문지와 만다라 그림에서 나타난 매체의 선호를 분석해 그 결과를 비교하여 이유를 알아냈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76명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6명(8%), 여자 70명(92%)이다. 연령 별로는 40대 21명(27.6%), 50대 36명(47.4%), 60대 19명(25%)이다. 투병 기간 별로는 2년 미만 52명, 2년에서 5년 사이가 24명이다. 질환 별로는 유방암 환자가 38명(50%), 유방암 외 환자가 3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Variable	Item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6	8.0
	Female	70	92.0
Age	40	21	27.6
	50	36	47.4
	60	19	25.0
Duration	0-2years	52	68.8
	2-5years	24	31.2
Disease	Breast cancer	38	50.0
	The other cancer	38	50.0

명(50%)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방암 38명(50%), 폐암 8명(11%), 혈액암 7명(9%), 갑상선암 5명(7%), 위암 6명(8%), 자궁경부암 3명(4%), 난소암 2명(3%), 췌장암 2명(3%), 직장암 2명(3%), 대장암 1명(1%), 설암 1명(1%), 간암 1명(1%)이다(Table 2 참고).

3.2 연령에 따른 매체 선호도

통원 암 환자들의 매체 선호도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확률이 0.622로 유의수준이 0.05에서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체 암 환자의 연령 별 매체 선호도는 40대에서는 잡지·오브제를 9명(42.9%)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파스넛이 7명(33.3%), 물감이 3명(14.3%), 파스텔이 2명(9.5%)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잡지·오브제 사용이 12명(33.3%), 파스넛이 11명(30.6%), 물감이 7명(19.4%), 파스텔이 4명(11.1%), 색연필이 2명(5.6%)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파스넛이 9명(47.4%), 오브제 사용이 5명(26.3%), 물감이 3명(15.8%), 색연필이 2명(10.5%)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40, 50대에서는 잡지·오브제 사용을 선호하였으나, 60대에서는 부드럽고 친숙한 파스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Media preference by age

Age	Colored pencil	Gel crayon	Pastel	Paints	Magazine, object	Total	ρ
40-49	0 (0.0%)	7 (33.3%)	2 (9.5%)	3 (14.3%)	9 (42.9%)	21	.622
50-59	2 (5.6%)	11 (30.6%)	4 (11.1%)	7 (19.4%)	12 (33.3%)	36	
60	2 (10.5%)	9 (47.4%)	0 (0.0%)	3 (15.8%)	5 (26.3%)	19	
Total	4 (5.3%)	27 (35.5%)	6 (7.9%)	13 (17.1%)	26 (34.2%)	76	

3.3 투병 기간에 따른 매체 선호도

통원 암 환자들의 매체 선호도는 유의확률이 0.189로 유의수준이 .05에서 투병 기간과 매체 선호도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투병기 간별 매체 선호도는 2년 미만에서는 잡지·오브제 사용이 19명(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스넛이 18명(34.6%), 물감이 8명(15.4%), 색연필이 2명(3.8%)이었다. 투병 기간 2년 이상에서는 파스넛이 9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브제 사용이 7명(29.2%), 물감이 5명(20.8%), 색연필이 2명(8.3%), 파스텔이 1명(4.2%)로 나타났다. 따라서 암 발병 후 2년

미만에서는 잡지·오브제를 19명(36.5%) 가장 선호하였고,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에서는 파스넷이 9명(37.5%)을 가장 선호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Media preference by disease duration

Term	Color pencil	Gel clayon	Pastel	Paints	Magazine, object	Total	ρ
0-2 years	2 (3.8%)	18 (34.6%)	5 (9.6%)	8 (15.4%)	19 (36.5%)	52	.189
2-5 years	2 (8.3%)	9 (37.5%)	1 (4.2%)	5 (20.8%)	7 (29.2%)	24	
Total	4 (5.3%)	27 (35.5%)	6 (7.9%)	13 (17.1%)	26 (34.2%)	76	

3.4 질환에 따른 매체 선호도

통원 암 환자의 질환별 특성상 유방암 환자가 38명(50%), 유방암 외 환자가 38명(50%)으로 연구 참여자의 참여 크기에 따라 유방암 환자와 유방암 이외의 환자로 나누어 카이제곱 검증을 한 결과 $P = .008$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선호하는 매체는 다음과 같다(Table 5 참고).

Table 5. Media preference by disease

Disease	Color encil	Gel clayon	Pastel	Paints	Objet magazin e	Total	ρ
Breast cancer	1 (2.6%)	15 (39.5%)	4 (10.5%)	1 (2.6%)	17 (44.7%)	38	.008
The other cancer	3 (7.9%)	12 (31.6%)	2 (5.3%)	12 (31.6%)	9 (23.7%)	38	
Total	4 (5.3%)	27 (35.5%)	6 (7.9%)	13 (17.1%)	26 (34.2%)	76	

Table 5에서, 유방암 환자가 선호하는 매체는 잡지·오브제가 17명(44.7%), 파스넷이 15명(39.5%), 파스텔이 4명(10.5%), 물감과 색연필이 각 1명(2.6%)으로 잡지·오브제를 가장 선호하였고, 색연필과 수채화 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외 환자들은 물감과 파스넷이 각 12명(31.6%), 잡지·오브제 9명(23.7%), 색연필 3명(7.9%), 파스텔 2명(5.3%),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방암 외 환자들은 파스넷과 물감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유방암 환자들은 잡지·오브제를 가장 선호하였다. 전체 암 환자들이 선호한 매체는 파스넷 27명(34.2%), 잡지·오브제 26명(32.9%), 물감 13명(16.5%), 파스텔 6명(7.6%), 색연필 4명(5.1%)으로 나타났다.

3.4 만다라(원형)에서의 매체 선호도

본 연구에 참여한 통원 암 환자들이 그린 만다라(원형) 그림을 매체 선호도 질문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참여자는 그림에서 가장 선호한 매체와 가장 선호하지 않은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했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결과는 참여자의 미술치료에서의 녹취록과 그림 작업, 매체 선호도 질문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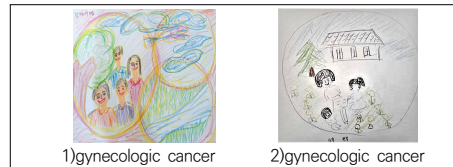


Fig. 1. Colored pencil medium preference

참여자1)과 참여자2)는 질문지에 선호매체를 색연필이라 응답했다. 느낌은 밝고 투명함, 마음이 편해짐, 부드러움이고 선택이유는 반복해서 칠하는 동안 단순한 색칠에 집중하면서 현재에 상황을 잠시 잊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기피하는 매체는 손이 많이 가는 매체로 물감, 점토 등으로 항암치료가 힘들어 기운을 많이 아껴줘야 하고 기력이 부족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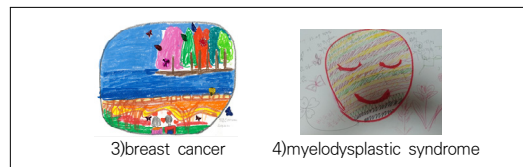


Fig. 2. Gel crayon medium preference

참여자3)과 참여자4)는 질문지에 선호매체를 파스넷이라 응답했고, 느낌은 부드럽지만 선명한 색상의 대조, 내 마음대로 강약을 조절 할 수 있음, 손에 묻지 않음, 부드러운 발림 등이라 말했다. 이유에 대해 촉감이 마음의 안정과 덧칠해도 색이 자연스럽게 섞여 영겨있던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기피하는 매체는 색연필, 크레파스며 가슴 수술 후 팔을 많이 쓰면 통증이 발생 되어 단단한 매체는 피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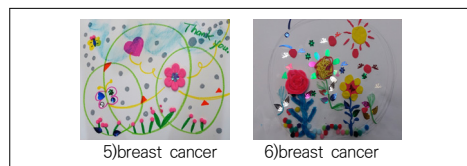


Fig. 3. Objet, magazine medium preference

참여자5)와 참여자6)는 질문지에 선호매체를 잡지와 오브제 매체라 응답했고, 느낌은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것, 꾸미는 것, 대리만족,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기 좋은 것이라 말했다. 이유에 대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잡지에서 찾아 꾸미는 동안 대리만족으로 기분이 전환되었고, 그림을 못 그리는 경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만족감과 편리함이 있고, 아프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화려한 장식을 선택하였다고 말했다. 기피하는 매체는 색연필이며 색이 흐리게 칠해지는 것이 우울한 자신의 기분과 동일 시 되는 것 같고, 팔에 힘을 많이 주고 칠하면 통증이 유발되어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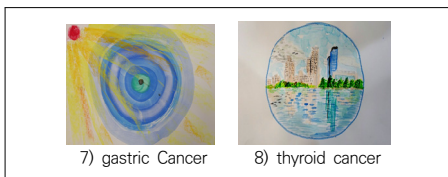


Fig. 4. Paints medium preference

참여자7)과 참여자8)은 선호매체를 물감이라 응답했고, 느낌을 우연함이 주는 자유로움, 번짐을 통한 편안함, 넓은 공간을 큰 붓으로 칠해가는 시원함이며, 선택이유는 물감과 평 붓으로 도화지에 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들을 표출 할 수 있는 것이 좋았고, 물과 색이 어우러져 번져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져 선택하였다고 말했다. 기피하는 매체로 색연필은 반복적으로 칠해야 면적을 채울 수 있는 매체라 힘이 들고, 사인펜, 크레파스는 환경 호르몬 같은 냄새로 인해 두통과 울렁거림이 생겨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질문지 결과와 만다라(원형) 그림을 비교해 본 결과 질문지의 응답대로 암 환자의 매체의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매체가 가진 특성에 따라 암 환자의 매체 선택에 있어 선호도와 비 선호도가 구분되며, 질환의 병증 요인이 매체의 선택 선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질문지를 질환별 매체 선호도로 분석한 결과에서 유방암 환자는 잡지·오브제, 파스넛, 파스텔, 물감, 색연필의 순서로 매체를 선호하였다. 기타 암 환자는 물감, 파스넛, 잡지·오브제, 파스텔, 색연필의 순서로 매체를 선호하였다. 만다라(원형) 그림으로 분석해본 결과에서도 질문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먼저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잡지·오브제 매체가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 탈모, 체형의 변화, 외모의 상실감 등으로 겪는

불안, 우울감 등을 화려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자존감 회복과 대리만족 경험이 매체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기타 암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감, 파스넛의 매체는 2차원 매체 중 유동적 매체로 통제되지 않은 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통증과 치료에 의한 긴장 상태를 이완시켜주며 치료의 고통, 재발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의료적·환경적인 모든 것을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가 없고 자기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매체의 사용 중 카타르시스를 느낀 경험이 유동적 매체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미술치료에서 통원 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여 이들이 선호하는 매체는 무엇이고 매체 선택의 이유는 어떠한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아본 통원 암 환자의 매체 선호도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와 통원 암 환자의 미술치료에서 연령에 따른 매체 선호도와 투병 기간에 따른 매체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질환에 따른 매체 선호도는 유방암 환자와 다른 암 환자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들은 3차원 통제 매체인 잡지·오브제를 선호하였고, 기타 유방암 외의 환자들은 2차원 유동 매체인 파스넛과 물감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암 환자들의 매체 선호이유를 분석한 결과, 색연필, 파스넛, 파스텔, 물감, 잡지 및 오브제에서 자기이해, 집중에 따른 통증 경감, 이완, 감정 발산 등 매체를 통한 경험이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미진[13], 남정현[24], 김미남[25]의 매체를 통한 오감의 지각과정과 심신의 이완 경험은 치료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얻은 통원 암 환자의 매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에서 통원 암 환자의 연령별 매체 선호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매체 선호에 따른 연령의 차이를 직접 비교 연구한 논문은 없지만 암 환자 200여 명의 관찰과 면접을 통해 암 환자들의 연령에 따라 정서 반응에 차이가 있다고 한 Kübler-Ross[26]의 연구가 있다. 그녀는 젊은 연령층 암환자들은 암에 대한 부정과 분

노를 표출하는 반면 노인층 암 환자는 우울과 수용을 주로 하여 연령층에 따라 정서 반응의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Kübler-Ross의 이론과 달리 본 연구의 참여한 암 환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파스넛, 잡지·오브제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 매체가 표현에 매개가 되는 것으로 미술 매체를 직접 접하는 탐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발견하고, 매체로 표현함으로써 긴장과 이완, 적극성과 수용성, 어색함과 조화로운 등을 경험하며 창조할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은 내담자의 연령과 상관없다는 Lowenfeld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27].

둘째, 미술치료에서 통원 암 환자의 투병 기간별 매체 선호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투병 기간에 따라 암 환자의 그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엄은영, 정여주[2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엄은영, 정여주[28]는 투병 기간이 2년 이상 되면 에너지가 많이 쇠약해져 있고 의욕도 없게 되어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투병 기간이 긴 경우에 개별 미술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병 기간 2년 미만의 암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항암과 방사선치료에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보다는 파스텔처럼 손으로 문질러 화면을 손쉽게 채우는 매체를 선택하거나, 그리는 대신 잡지나 오브제로 오리거나 붙여서 작업을 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 매체를 선호하였다. 암 환자들은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통증과 후유증을 겪게 되는데, 미술치료 시 참여자들 중 면역 기능 저하, 피로, 무기력, 통증과 같은 신체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워 미술치료를 중단하거나 중도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에 참여한 암 환자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겪는 심신의 소진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낮은 에너지가 활동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암이라는 질병에 기인한 요인이 다양한 매체의 시도를 적게 만들어 작품 활동을 단조롭고 단순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술치료에서 통원 암 환자는 유방암 38명, 유방암 외 기타 암 환자가 38명으로 질환으로 구성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매체 선호도에서 질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유방암 환자들은 입체 3차원 통제 매체인 잡지·오브제를 선호하였고, 기타 암 환자들은 평면 2차원 유동 매체인 물감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들은 작업에서 비즈, 스팅글 과 같은 화려한 색상이나 광택이 나는 오브제를 사회에서 고립되고 무기력한 자신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방암 환자에게 미술 작업에서 오브제 사용은 작품의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김병철 외[29]의 연구보고와 일치 한다. 또한, 유방암 환자의 미술치료에서의 표현 욕구가 삶에 대한 에너지 수준을 높게 한다는 선행연구[30]에서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유방암 환자도 그들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질 수 있는 매체의 다양한 체험과정에서의 만족도가 미술치료를 의욕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이는 매체의 구성을 2차원 매체는 물론 3차원 매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기타 암 환자가 미술치료 시 선호하는 매체는 2차원 매체인 파스넛 과 물감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을 제외한 기타 암 환자들은 미술치료에서 오리거나, 꾸미기, 붙이기 등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작업보다는 부드러운 매체를 이용한 단순한 작업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선택한 유동적인 매체 사용 경험은 자신들이 겪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심신을 이완시키고 안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미술치료에서 통원 암 환자들의 만다라(원형) 그림에서 유방암 환자는 잡지·오브제와 파스넛의 매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암 환자들은 물감, 파스넛의 매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방암 환자들은 잡지·오브제의 반짝거리거나 화려한 것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현 상황과는 반대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보였다. 또한, 잡지를 매체로 사용하면서 표현의 부담을 덜고 이미지를 통해 대리만족을 경험하면서 기분이 전환되어 미술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매체선택의 결과는 잡지·오브제 매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이성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표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표현을 증진시켜 성취감과 만족감을 충분히 산출하도록 도와준다는 임미정[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기타 암 환자들은 2차원 매체 중 유동적인 매체인 물감, 파스넛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만족감을 보였으며 부드러운 유연함에서 오는 편안함을 통해 긴장이 완화됨을 경험하였다. 이는 통제되지 않은 매체를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현실의 통제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매체 선택의 결과는 유동적인 매체가 심신의 안정,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키고 스트레스와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이는 암 환자들은 매체를 통하여 작업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는 연구[3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며 또한 인간의 삶의 질을 상실하게 하는 질환으로 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암은 치료의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 후 남는 후유증으로 인해 암 치료는 물론 이후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암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암 질환을 고려한 매체 선별이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의미가 있다. 그로 인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암 환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심신의 안정과 위안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술치료에서 통원 암 환자들이 사용한 매체를 통해 그 선호도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체의 특징을 파악하여 질환별 통증 유발요인을 줄이고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술치료에서 통원 암 환자의 매체 선호도와 선호이유를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통원과 입원을 반복하는 암 환자는 물론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통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정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암 환자 표집에 있어 지역과 입원치료 대상자, 자가 치료 대상자의 구분과 암 질환별 수준과 차이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암 환자 대상 군을 폭넓게 포함시켜 암 환자의 매체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7).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of Death 2017*. Seoul. <http://cancer.go.kr>
- [2] J. I. Kang & G. G. Nam. (2007). Psychosocial Aspects and Mental Health in Cancer Patients. *Neuropsychiatry, 46(5)*, 421-429. UCI : G704-001050.2007.46.5.015
- [3] S. J. Cho. (2007). Hospice Palliative Medicine and Psychiatry.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6(1)*, 58-64. DOI : 10.1016/j.jpainsymman.2010.06.023
- [4] K. A. Kang & P. J. Oh. (2001). Depression, The Meaning of Suffering and Life Satisfaction in Cancer Patients.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1(1)*, 44-53.
- [5] N. Nainis, J. A. Paice, J. Ratner, J. H. Wirth, J. Lai & S. Shott. (2006). Relieving symptoms in cancer: innovative use of art therapy.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31(2)*, 162-69. DOI : 10.1016/j.jpainsymman.2005.07.006.
- [6] M. S. Kim. (2003). Effects of the Self-Help Group program for Quality of Life in Women with Breast Cancer. *Oncology nursing Journal, 3(1)*, 45-55.
- [7] B. R. Cassileth. (2004).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for cancer. *The Oncologist, 9*, 80-89. <http://TheOncologist.com>
- [8] J. A. Scott, N. Kearney, S. Hummerston & A. Molassiotis. (2005).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patients with cancer: A UK survey. *European Journal of Oncoogyl Nursing, 9*, 131-7. DOI : 10.7861/clinmedicine, 13-2-126.
- [9] M. Berretta et al. (2017).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in cancer patients: an Italian multicenter survey. *Oncotarget, 8*, 24401-14. DOI : 10.18632/oncotarget.14224
- [10] Y. J. Choi, J. S. Lee & S. H. Cho. (2012). Use of Korean Medicine among cancer patients.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33(3)*, 46-53.
- [11] T. H. Kim.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 of Overcoming Anxiety among Female Thyroid Cancer Surviv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eong University. Busan.
- [12] H. R. Won. (2015). The effect of person-centered group art therapy program to the breast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Buddhism. Seoul.
- [13] M. J. Kim & K. M. Lee. (2015). A Qualitative Study about Effective Art Materials for each Therapeutic Factors in Art Therapy: Based on Expert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2(4)*, 1085-1110. DOI : 10.35594/kata.2015.22.4.003
- [14] H. B. Landgarten. (1987). *Family Art Psychotherapy*. London: Routledge.
- [15] C. K. Kim, Y. J. Lee, J. J. Jung & Y. Y. Choi. (2016). *Counseling Dictionary*, Seoul: Hakjisa: 2016. p. 652.

[16] H. R. Won. (2013, November). Art Media & Physical Therapy. *The Korean Arts Psychotherapy Association Conference*. Seoul: The Korean Arts Psychotherapy Association. pp. 17-35.

[17] H. H. Jung. (2006). *Art Therapy for Practical Approach*. Seoul: Hakjisa. p. 257.

[18] C. K. Kim, Y. J. Lee, J. J. Jung & Y. Y. Choi. (2016). *Counseling Dictionary*, Seoul: Hakjisa; 2016. p. 652.

[19] Y. J. Kim. (2018). *The Influence of Group Art Therapy on Anxie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Unmarried Women with Breast Canc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20] M. N. An. (2020). *Qualitative Case Study of Art Therapy to Deal with Grief in a Female Cancer Patient with Physical Lo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1] S. H. Mo. (2019). An Analysis of Trend of Art Therapy Study on Cancer Patient :Focused on Journal Articles in Korea from 2002 to 201.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 University. Pocheon.

[22] G. H. Son. (2009). *Practical Pharmacy, First Edition*. Military Publishing Company, Seoul: Koonja; 2009. pp. 311-325.

[23] S. F. Fincher. (1991). *Creating Mandalas -For Insight, Healing, and Self-Expression*. Boston & London: Shambhala Publisher.

[24] J. H. Nam. (2012). Development of the Criteria of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Art Therapy.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19(3), 485-500. DOI : 10.35594/kata.2012.19.3.002

[25] M. N. Kim. (2007). A Study on Art Therapeutic Factors of the Action Painting.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7(2), 83-101.

[26] E. Kübler-Ross. (1969). *On death and Dying*. London: Collier-Macmillan.

[27] J. A. Rubin. (1999). *Introduction to Art Therapy: Sources & Resources: An Introduction(Basic Principles Into Practice Series)*. London: Routledge.

[28] E. Y. Eum & Y. J. Jung. (2007). A Study of the Tendencie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ancer patients Children's Pictur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3(2), 193-216.

[29] B. C. Kim, S. S. Kim, S. H. Park & J. M. Park. (2016). *Media Research and Techniques for Art Therapists*. Seoul: Yangseowon. pp. 233-234.

[30] H. K. Cho. (2008). *The Effects of Clinical Art Therapy on Anxiety and Depression in Breast Cancer Patients*.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 Welfare Manag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 University, Pocheon.

[31] M. J. Lim. (2010). *Research on Application of Recyclable Materials for the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egu.

[32] C. A. Malchiodi. (2006). *The Art Therapy Sourcebook*. Choi JY, Kim JY. *The Art Therapy Sourcebook*. 1st ed. Seoul: Chohyong Education Ltd. p. 213.

이 윤 희(Yun-Hee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동국대학교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 전공(석사)
- 2020년 12월 :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임상 미술치료 전공(박사학위예정)
- 2018년 2월 ~ 현재 : 하트 스페이스 미술 심리연구소 소장

· 관심 분야 : (아동, 청소년, 성인, 재활) 정책, 미술 심리 지원

· E-Mail : claymate0729@gmail.com

김 지 은(Jee-Eun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미술 교육학(석사)
- 2010년 5월 : 미국 Long Island University 임상미술치료학(석사)
- 2016년 5월 : 미국 Lesley University 표현예술치료학(미술치료전공)(박사)

· 2016년 8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미술 치료학과 조교수

· 관심 분야 : (청소년, 성인, 노인, 재활, 호스피스, 영성) 미술치료, 표현예술치료, 임상수퍼비전

· E-Mail : jeeun.claraje@cha.ac.kr